

종교개혁과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성경의 권위*

(Reformation and Korea Christian Church: the Authority of the Bible)

I. 서론

'성경'이란 단어는 1세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 간주된 책들의 모음”을 가리켜 사용되는 명칭이었다.¹⁾ 이런 책들은 유대교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뿐 아니라 구성원 개인들에게 규범적 성격, 즉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²⁾ 성경이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규범이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대교나 초대 그리스도교는 이 근거를 성경의 신적 기원에서 찾았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³⁾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구약을 넘어 예수그리스도의 위격과 그의 사역에 관한 사도적 기록과 설명까지 확대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기존 가톨릭교회가 성경과 교회전통에 부여한 권위를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을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기초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 성경 권위의 근거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세웠다.⁴⁾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린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7)는 성경 권위의 근거를 성경의 내용과 그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에서 찾았다.⁵⁾ 루터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매체)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은 성경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Word of God)임을 입증한다. 루터에게 성경의 핵심과 내용은 성경 내 정경(신앙과 실천의 규범이 되는 문서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종교개혁 2세대인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성경 권위의 근거를 (초대 그리스도인 처럼) 성경의 영감에서 찾았다.⁶⁾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성경 안

* 본 연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아시아기독교사학회 제12회 정기학술회의 발표(2017년 9월 23일)를 위해 준비한 것임.

- 1)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d., T. Desmond Alexander and Brian S. Rosner, 신현기 역, R.T. Beckwith, 항목, “정경.” 『IVP성경신학사전』.
- 2) 사전 상으로 “권위”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명령에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한다. *The New Bible Dictionary*, 1st ed., s.v. “Authority.”
- 3)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d., T. Desmond Alexander and Brian S. Rosner, 신현기 역, E. J. Schnabel, 항목, “성경.” 『IVP성경신학사전』.
- 4) Aliste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소기천, 이달, 임건, 최충혁 옮김, 『신학의 역사』 (서울:知와 사랑, 2001), 284.
- 5) David W. Lotz, “Sola Scriptura: Luther on Biblical Authority,” *Interpretation* vol.XXXV-no.3(1981): 268, 273; P. S. Watson, *Let God be God*, 이장식 역,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서울: 컨콜디아사, 1990), 269-317.
- 6) 칼빈의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는 3가지 상이한 입장이 있다. ① 칼빈은 성경 저자들의 영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41. ② 성경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언임. ③ 성경은 신의 구술 혹은 영감의 결과로 신이 구술한 것과 같음. H. Jackson Forstman, *Word and Spirit, Calvin's*

에 하나님이 있다. (딤후 3:16; 벰후 1:21) 성경 권위의 근거가 되는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성경저자들의 마음과 혀를 주장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늘로부터 말하도록 위임받은 것을 [전달한] 성령의 기관들”으로써 마치 “구술”(dictate)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다.⁷⁾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 시킨 동일한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여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명은 칼빈이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종교개혁의 성경관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국내 개신교 중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교단 중 하나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에 주목할 것이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1937년 미국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 1905-1987)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350개 교회에 3만 여명의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교회이다.⁸⁾ 동 교회는 분열된 교회들의 연합을 목표로 하고 성경과 관련하여 7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⁹⁾

한국그리스도의교회의 성경관은 미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의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알렉산더 캠벨이 성경을 교회연합의 기초로 삼고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이유와 성서 권위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교회가 강조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연합,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가 한국 기독교에 주는 의미를 전망해볼 것이다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49. 연구자는 세 번째 구술론에 동의함.

7) 칼빈의 저서에서 구술이란 글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에 역사하여 성경저자들의 지식, 감정, 의지로 쓰게 한다는 의미이다. 정규남, “칼빈의 성경관” 『칼빈과 개혁신학』 (1999):83-97.

8)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교회는 국내에서는 그리스도의교회(유약기)로 알려져 있으며, 사전상 공식 명칭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d., Douglas A. Poster et al., Henry E. Webb. 항목. “그리스도인의교회들/그리스도의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 (2015).

9)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7 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책은 성경만’ (No book but the Bible)
- ② ‘신조는 그리스도만’ (No creed but Christ)
- ③ ‘명칭은 하나님의 것만’ (No name but the Divine)
- ④ ‘주장은 복음만’ (No name but the Divine)
- ⑤ ‘일치의 근거는 성경으로만’ (No plea but the Divine)
- ⑥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 charity)
- ⑦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http://cco.or.kr> / 2017년 8월 18일

II. 알렉산더 캠벨과 성경의 권위

A. 교회연합의 기초: 성경

알렉산더 캠벨은 미국그리스도의교회를 시작한 초기 지도자들 중 동 교회의 성경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다. 그는 아일랜드 분리주의 장로교(Sceder Presbytery) 소속 목사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1763-1853)의 아들로 태어나 18세기 서구의 개인주의가 철학과 학문 그리고 사회 전반에 준 영향으로 교회 분열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성장했다.¹⁰⁾ 그가 정규 대학에서 보낸 시간은 1년도 채 안되지만 아버지 캠벨의 지도 아래 고전어와 기초 학문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 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존 록크(John Locke, 1632-1704) 등 경험주의자들의 저서를 읽었다.¹¹⁾ 1807년 미국으로 이주한 아버지 토마스 캠벨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여 함께 브러시런 교회(Brush Run Church)를 치리하고, 이후 30여 년 간 분열되고 있는 미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Bible)는 모토 아래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전개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가 전개하는 환원운동을 “성경 위에서 교회연합을 확보하는 것”(secure union upon the Bible)이라고 말한다.¹²⁾ 캠벨에 의하면, 그가 환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교회연합을 시도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제시한 연합의 기초는 인간에 내재한 어떤 것(이성, 감정 등), 성경을 해석하여 나온 신조나 고백, 신학체계(교리, 성경신학 등)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연합에 성공할 수 없다. 교회 연합의 기초는 오로지 성경(the Bible alone)이어야 한다. 연합을 위해 그는 아버지 캠벨이 도입한 모토“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를 자주 언급했다.¹³⁾

캠벨이 교회연합의 기초로 성경만을 주장한 이유는 인간 지식과 신적 계시에 대한 그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¹⁴⁾ 영국 경험주의자 존 록크의 영향을 받은 캠벨은 인간 지식은 감각적 사물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감각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즉 신과 영적 세계에 대해 알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도 가질 수 없다. 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캠벨은 신적 계시의 특징을 계시의 저자가 신이라는 것과

10) 개인주의의 특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사생활, 자기 계발 등 이다. 기독교에서 개인주의는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어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와 교회 내 여러 계파, 그리고 다양한 종파 등에 나타나다가 교파주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30-47; Steven Luke, *Individu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5), 45-72, 94-98.

11) M. Eugene Boring, *Disciples and the Bible: A History of Disciples Biblical Interpretation in North America*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1997), 55-56.

12)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St Louis: Christian Publishing Company, 1900), 69-74.

13) Leroy Gerret, *The Stone-Campbell Movement*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1), 143.

14)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187.

계시의 내용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¹⁵⁾

신적 계시가 (모든 것을 감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가 되려면, 계시는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는 형태의 매체로 표현되어야 한다. 캠벨에 의하면 신적 계시가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매체는 책 혹은 말씀(Word) 이다.¹⁶⁾ 계시는 인간에게 전달된 신의 생각과 뜻이며 그 생각과 뜻은 말로 구현된다. 때문에 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성경에 말씀으로 구현된 계시를 통해 얻어진다.”¹⁷⁾ 캠벨에게 성경은 신적 계시가 구현된 말씀으로 교회연합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닌 성경에만 전적으로 기초해야 한다.

B. 성경의 영감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매체가 ‘책’ 혹은 말씀(Word)이라면 성경저자들은 어떻게 신과 소통하는가? 캠벨에 의하면 신이 성경저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신이 성경을 통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소통하는 방법과 같지 않다. 그렇다고 그 소통하는 방법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소통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도 아니다. 성경 저자들이 계시를 받는 과정은 “인간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의 확장일 뿐이다.”¹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감각(sense)을 통해 신으로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받는다.

캠벨은 성경저자들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특별한 방법을 영감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가끔 ‘축자설’을 주장하게 보이는 표현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경저자는 필기자(penmen)였다. 성령이 저자들로 하여금 성서를 구술하거나(dictate) 혹은 문자화(indite)하게 했다. 또 신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시내 산에서 모세와, 생생한 말을 했다. 신은 첫 사람 아담에게 들리게 이야기하여 말을 가르쳤다.¹⁹⁾ 그러나 캠벨은 당시의 급진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축자설에 철저히 반대했다.²⁰⁾

성경의 영감을 설명하기 위해 캠벨은 성경의 내용을 두 종류, 즉 순수한 초자연적인 것들(신의 영, 영의 창조, 영혼, 부활)과 자연적,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애굽에서 노예생활, 광야순례, 가나안 정복, 사사와 왕들의 역사)로 구분했다.²¹⁾ 초자연적인 것들의 설명에서 성령은 말씀으로 소통하고, 반면 자연적,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의 기록에서는 성령은 단순히 기

15)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 344.

16) 계시가 오로지 말(Word)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캠벨의 생각의 철학적 기초는 록크의 경험적 인식론이다. 록크가 말하는 신과 인간의 소통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과 인간의 소통은 지식의 형태여야 하고 지성(intellect)의 문을 통해서 한다.

② 인간의 지성은 감각이 제공한 자료에 온전히 근거하므로, 지성은 결코 감각적 자료없이 어떤 영적 관념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는 지적 인식에 제한되며, 지적 능력은 감각에 의해 제한되며, 신과의 모든 대화는 한 매개체, 책에 제한된다. 책은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의 구체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193-94.

17) 위의 책, 194.

18) 위의 책, 197.

19)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 37, 199.

20) Mark G. Toulouse, *Joined in Discipleship*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1997), 41. ‘축자설’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심지어 의미 있는 단어 하나 제목 하나까지도 백프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21)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 344

록자의 기억을 강화하고, 이야기에 필요한 사실들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이야기의 절대 정확성을 보장한다. 성경 내용의 이중분류는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완전무오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²²⁾ 캠벨은 성경 전체가 신적 계시라거나 신이 인간에게 소통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다만 신이 인간에게 준 계시 혹은 소통한 것(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²³⁾

C. 성경의 내용

캠벨은 성경 권위를 성경의 신적 기원(성경저자의 영감) 외에 성경의 독특한 내용에서 찾았다. 성경은 다른 곳에 말해지지 않은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독특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덕적 사실들”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정의를 성경에 적용한 캠벨은 성서에 나타난 신의 행위들과 신의 말씀들 혹은 신이 행하고 말한 것들을 사실로 이해했다.²⁴⁾ 캠벨에게 성경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적 사건들(창조사건, 이스라엘 역사, 그리스도의 초림, 교회의 현재 사역, 종말의 사건들), 즉 “하나님의 강한 행위들”(mighty acts of God)에 대한 증언이다. 신앙은 성경 명확히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증언(사실)을 믿는 것이다. 성경의 중요 주제는 이 역사적 사건들을 “일관성 있는 전체”로 만들어 주는 핵심주제, 즉 인류구원과정의 역사이다.

캠벨은 17세기 후반 칼빈주의정통에 반대하고 ‘언약신학’을 발전시킨 일부 칼빈주의자들의 ‘역사 발전’의 개념을 성경 이해에 적용하여 인류구원사를 단계적 발전으로 이해했다.²⁵⁾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구원사의 두 개의 큰 전환점을 시내 산에서 율법의 수여(출 20장)와 오순절 교회의 시작(행 2장)으로 보았다.²⁶⁾ 이것에 따라 인류구원사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3 세대, 즉 타락 이후 ‘족장’ 세대(창 1장~출 19장), ‘모세’ 세대 혹은 ‘유대인’ 세대(출 19장 - 행 1장),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대(행 2장~계 22장)로 구분하였다. 세대의 교리는 인류구원과정의 역사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 준다.²⁷⁾

‘족장’ 세대는 타락 후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시대이다. 이 세대는 가족 혹은 부족 중심 사회로, 연속되는 계시로 신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과 신의 친근함이 증가한다. ‘모

22)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201.

23) Alexander Campbell, *Christian Baptist*, 344

24) 베이컨은 “사실”이라는 말을 ‘누군가에 의해 행하여졌거나 말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Leroy Gerret, *The Stone-Campbel Movemen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1), 28-29

25) ‘언약신학’을 발전시킨 일부 칼빈주의자들은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와 헤르만 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이다. Winfred Ernest Garrison, *Alexander Campbell's Theology, Its Sources and Historical Setting*, 129-139.

26) Alexander Campbell, "Sermon on the Law", 기준서 역, “율법에 관한 설교” (1816) 『환원운동의 3대 문서』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교출판국, 2002), 168-193.

27) 세대의 교리는 *Christian Baptist*(1823-1830), *Christian System*(1839)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세’ 세대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헌법 혹은 계약을 통해 왕과 신민의 관계(입헌국가)가 된다. 왕으로서 신은 계약의 조건(종교, 도덕, 의식 의무의 목록을 포함)을 제시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유대인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한 축복(일시적 번영, 장수, 그리고 민족적 성공 등)을 약속한다. ‘그리스도인’ 세대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왕인 그리스도는 신의 말씀(신약), 성령의 처분, 예언자, 대제사장, 최고의 입법자이며, 신민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대신 왕의 약속된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용서받고, 정당화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신의 가족으로 수용되고, 신을 아는 수단이 주어지고, 부활, 영생,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 왕국의 법은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즉 오순절 전까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 법은 (마치 유대인과 신의 계약에서 법이 창세기가 아니라 시나이 이후의 시간을 다루는 책에서 찾아져야 하듯이) 오순절 이후 기록(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찾아져야 한다.

캠벨에게 성경의 인류구원사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세대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권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율법은 ‘모세’ 세대이며 이 세대는 법과 도덕, 그리고 의식법을 포함한다. ‘모세’ 세대는 임시 종결에 도움이 되나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 세대의 출현으로 폐기된다. 율법의 힘은 제한되어 있어 의를 줄 수 없고, 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없으며,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규정이다. 율법의 결점들은 율법을 완전히 대체한 복음 아래에서 치료된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 예비단계이며,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생애는 구원의 도구인 교회에 대한 예비적 사건이다.

캠벨의 세대의 교리는 성경 본문의 정경성을 차별화 하는데 사용된다. 그와 추종자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대에 관심을 둔 캠벨은 구약보다 교회가 시작된 신약에 더 높은 권위를 준다. 신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그리스도는 오로지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으로 중재된다. 신약에 순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다름없다. ‘그리스도인’ 세대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교회의 규정들, 예배와 예배의 형식, 규정, 징계, 치리 등은 중요하다. 오순절 사건 전의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들을 포함해서 교회 이전 시대(‘족장’ 세대와 ‘모세’ 세대)에 관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정된 규정들과 실천들만 따라야 한다. 신약에 실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규정들과 실천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명령들과 승인된 본보기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로 간주한 것들로 (교회연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성경 안에 인류구원과정의 역사를 세대별로 구분하고, 신약의 권위에 우위를 두는 것은 그의 추종자들을 “신약백성” “신약교회”로 지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캠벨은 종교개혁 이후 2세기 동안 개인주의 영향 아래 분열되어가는 교회연합의 기초를 성경에서 찾았다. 그는 성경의 내용을 본질과 비본질로 구분했다. 전자는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로 간주한 것들로 이것들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후자는 본질 외의 것들로 그리스도인 개인별 의견 차이를 인정하여 신앙생활에서 전체와 개인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점을 모색했다. 그는 아버지 캠벨과 함께 17세기 독일 신학자 멜더누이스(Rupert Meldenuis, 1582~1651)가 도입한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 charity)을 환원운동의 모토로 사용했다.²⁸⁾

28) 이 구절은 원래 교회일치론자 가톨릭 인문주의자 George Cassander(1560년대에 활동)가 작성했다. Rupert Meldenuis는 이 구절을 루터교회와 칼빈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호소하는 그의 글

III. 한국그리스도의교회와 성경의 권위

19세기 초 알렉산더 캠벨이 시작한 환원운동은 20세기 전반 미국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고, 이후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되었다.²⁹⁾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분열된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을 인지하고 교회연합을 위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고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를 성경의 신적 기원과 내용에서 찾았다.

A. 교회연합의 기초: 성경

1930년대 초 한국에는 두 개의 큰 교파[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몇 개의 교파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³⁰⁾ 1936년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한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사 채이스의 선교사역의 목적은 한국 교인이 교파주의로 부터 벗어나 “신약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세우는 것이었다.³¹⁾ 채이스가 언급한 “신약기독교”는 신약의 규정에 따르는 기독교이다.³²⁾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첫 기독교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교회이며 사도행전과 서신들에 서술되어 있는 교회이다.³³⁾ 1937년 초 채이스가 개설한 성경훈련학교(Bible-training Institute)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신약기독교’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본토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학교로, 이 학교의 주교재는 신약성경이었다.³⁴⁾

해방 후 1946년 한국그리스도의교회 1세대 지도자 성낙소(1890-1964)는 일제강점기 말 일제의 강요에 의해 통합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부터 기존 교파 교회들이 탈퇴하여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장정 규칙’을 성경보다 더 존중하여 각 교파와 종파로 분열하여 분쟁하는 사실을 목격했다.

지금은 모든 신자들이 각각 말하되 나는 회람교에 속한 자요, 나는 카톨릭에 속한 자

Paroenesis(1626)에 인용했다. 이후 청교도 목회자 Richard Baxter의 책 *The True and Only Way of Concord of All the Christian Churches*(1680)에 인용되면서 대중화되었다. Henry E. Webb,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bilene: ACU Press, 2003), 482-83.

2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6), 120-63, 202-50, 373-412 ;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no.1(2012): 123-147; 김경중, “존 T. 채이스(John Trawrick Chase)의 한국선교: 한국기독교선교회(Korea Christian Mission)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2011).

30) William D. Cunningham, "Awakening Korea", *Tokyo Christian*, November 1933, vol.XXXIII-no.1, 1.

31) *Christian Standard*, 9 May 1936.

32) *Korean Messenger*, June 1937, 2.

33)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Cincinnati, Ohio: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n.d.), 3-5. 이 소책자는 1937년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34) *Korean Messenger*, April 1938, 3.

요, 나는 구세군에 속한 자요, 기타 각 교파와 종파에 속한 자라고 하여, 그 단체 헌법과 장정 규칙을 존중시 하고 성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여 분열됨으로서 분쟁하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니...

성낙소는 교회분열을 막고 연합으로 가기 위해 “한국그리스도의교회 합동 통합선언문”을 작성했다.³⁵⁾ 이 선언문에서 그는 요한복음 17장 11절, 21~22절에서 예수는 모든 신자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13절에서 교회분열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각 교파 교인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들이 하나가 될 것을 호소했다.

성낙소의 교회연합 선언은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의 성경 중심 교회연합 정신은 이후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1970년대 한국그리스도의교회 2세대 지도자 성수경은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책으로 신앙생활의 표준이며 “성경대로의 신앙이 정통이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도덕의 표준”이라고 말했다.³⁶⁾ 최윤권은 1990년대 당시 한국 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이라고 부르며, 교파 교회로 나누어져 교세 확장을 위해 경쟁하고, 교파나 교회의 크기, 숫자를 말하고, 전통을 찾는데 급급한 사실에 주목했다.³⁷⁾ 또 한국 교회의 이런 교파 경쟁 현상을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여러 가지 종파색으로 착색되어” 거두어진 결과로 보고 교파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성경으로 혹은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그리스도의교회 토마스 캠벨이 작성한 모토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를 인용했다.³⁸⁾

현재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7 가지 중 첫 번째 가치는 ‘책은 성경만’ (No book but the Bible)이다. 이 가치는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절대 기준은 ‘오로지 성경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 협의회가 추구하는 다섯 번째 핵심가치인 “일치의 근거는 성경으로만”(No Plea but the Divine)은 교회일치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 것이다. 최윤권은 교회일치 방법으로 “만일 모든 교회가 그 속에 인위적인 요소[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 경험, 의견 등 과 교회의 전통, 헌장, 조직, 신조 등]를 모두 버리고,³⁹⁾ “교권이니 법권이니 하는 인간적 욕망을 내어 던지고...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여 성경에 계시된 모형대로 시행해 나가면 단합은 아니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⁴⁰⁾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교회, 즉 예수가 세우고 새로운 계명에 따라 구원받고 생활하는 성도의 모임이다.

B. 성경의 영감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존 칼빈과 알렉산더 캠벨처럼 성경 권위의 근거를 성경의 영감에

35)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成樂紹)와의 관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143-44.

36) 성수경, 『초대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요강』, (서울: 새한문화사, 1971), 160.

37) 최윤권,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서울: 흥익제, 1992), 30, 33.

38) 위의 책, 64.

39) 위의 책, 79-85.

40) 위의 책, 228.

서 찾았다. 1937년 본토인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번역하여 출판한 첫 교리서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신약교회 입문)에서 웰시머(P. H. Welshimer)는 “구약과 신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였다.⁴¹⁾ 이후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영감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에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고 “고등비평”을 도입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성수경은 그의 신학입문서 『초대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요강』에서 오경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오경의 모세 저작권에 반대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성경의 신적 기원을 들어 모세의 저작권을 변호했다.⁴²⁾ 그에 의하면 성서의 기원은 성경 자체가 증명하는 것으로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아버지[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딤후 3:16)이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하셨다.”(출 31:8)⁴³⁾

최윤권은 그의 책 『교회가 하나 되는 길』에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를 소개하고, 이들이 고등비평을 수용하고,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증언한 책 혹은 성경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했다.⁴⁴⁾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으로 무오하며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다.⁴⁵⁾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성경을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기초로 삼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성경 권위의 근거를 성경저자들의 영감에 두고 있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로 주장한 영감설은 알렉산더 캠벨의 영감설보다 더 보수적인 칼빈의 구술설에 가깝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의 영감설은 19세기 후반 칼빈의 전통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미국 근본주의자들과 함께한 한국 장로교 보수계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⁴⁶⁾

C. 성경내용과 성경본문의 상대적 권위

한국그리스도의교회에게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즉 성경에는 다른 인간의 책에는 없는 인류구원의 역사가 있다. 웰시머는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에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책은 신약이라고 말했다.⁴⁷⁾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신약에 있다.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은 신약에 들어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그 명령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⁴⁸⁾ 구약과 신약

41)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6.

42) 성수경, 『초대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요강』, 167-72.

43) 위의 책, 159-160. 구약 각 책에는 “하나님이 가사사대...”라는 구절이 많이 나온다.

44) 최윤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서울: 흥익제, 1992), 140-43.

45) 위의 책, 142.

46) 김근수, “한국교회와 성경영감과 무오”, 『칼빈論壇』(2004): 28-29.

47)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6-7.

48) 위의 책, 6

의 관계는 구약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구약이 계시되어 있다.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성수경은 알렉산더 캠벨의 세대의 교리를 도입하여 성경 안에 구원의 역사를 단계별 3 시대로 구분하고, ‘족장’ 시대를 성광에, ‘모세’ 시대를 월광에, 또 신약의 ‘예수’ 시대를 태양 곧 일광에 비유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인류의 생애 주기로 구분하여 구약은 인류의 유년기를 위한 교훈이요 신약은 인류의 장년기를 위한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신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가장 완전하게 출현한” 것으로 “전 인류 구속의 정상점”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예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성수경은 당시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일 설교제목을 구약에서 택하는 것보다 신약에서 택하는 것이 좋으며 구약의 역사 및 인물 전기를 실례로 사용하라고 권면했다.⁴⁹⁾

최윤권 역시 알렉산더 캠벨과 성수경 처럼 성경의 역사 안에 3 시대, 즉 ‘사사’ 시대, ‘유대인’ 시대, ‘그리스도인’ 시대로 구분하고, 이 시대 구분을 성경본문의 권위를 차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 3 시대는 3 명의 다른 제사장, 즉 멜기세덱, 아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각각 다른 법칙 아래 통치되었다. ‘사사’ 시대에는 제사로, ‘유대인’ 시대에는 율법으로, ‘예수’ 시대에는 신약의 복음으로 통치된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특수한 교훈이 있는데 3 시대의 교훈은 각각 그 시대에 적용되어야지 다른 시대에 적용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유대인 시대에 사사 시대 처럼 제단을 쌓거나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착각이다.⁵⁰⁾

율법은 구약의 전체(십계명과 오경 포함)를 의미하며, ‘유대인’ 시대에 해당한다. 율법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죄의 해(죄책)를 없애지 못하며, 유대인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법이다. 율법은 불완전 한 것으로 ‘그리스도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한다. 반면 신약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으로 의와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며, 모든 믿는 자의 구원에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시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법인 신약이 구약보다 우위에 있으며 신약을 따라야 한다. 최윤권은 오늘날 기독교가 구약에 속하는 교리들, 유아세례 혹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 혹은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캠벨에게서처럼 최윤권에게도 신의 구원계획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사사’ 시대 혹은 ‘율법’ 시대를 통하여 준비된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수된다. 그래서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이 없이 구약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위가 있는 성경은 신약이다. 최윤권 자신은 성수경처럼 당시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일 설교제목을 신약에서 택하라는 직접 권면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작성한 설교에서 거의 90%는 신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이다.⁵¹⁾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7 가지 중 두 번째는 “신조는 그리스도만”(No creed but Christ)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구절로 말해준다. 인간이 역사 안에서 만든 인위적인 신조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분리시킨다. 그러므로 신약에 알려진 신

49) 성수경, 『초대 그리스도의교회 신학요강』 166.

50) 최윤권, 『교회가 하나 되는 길』, 92.

51) 최윤권, 『1년 52주 설교집』 (서울: 초석출판사, 1986). 1년에 행한 설교 54개 중 6개가 구약본문 설교이고 나머지 54개는 신약본문 설교이다.

조 내지 신앙고백, 즉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예수]는 그리스도(구세주)“는 사도들의 시대에 사람을 그리스도화 하기에 충분했고 오늘날도 충분하다.⁵²⁾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여섯 번째는 캠벨 부자가 내건 ‘본질에는 일치, 의견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으로’이다. 이 표어에 나오는 ‘본질’은 성경 내 정경으로 성경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문자로나 혹은 선례로서 표시되어 있고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이 같은 것을 입증하며 그것이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본문을 말한다. 교회연합을 위해 이 본문에 대해서는 개인 해석의 자유는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다.⁵³⁾ 신학 혹은 교회 치리 상, 만일 성경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의 해결은 각 개인 혹은 개교회의 자유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를 정죄할 수 없으며 이단시하지 못한다. 의견은 각자 다르더라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사랑으로 대해야한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성경 권위를 성경의 독특한 내용에서 찾았다. 동 교회가 주목한 성경의 독특한 내용은 3단계로 전개되는 인류구원사이다. 동 교회의 3단계 인류구원사는 알렉산더 캠벨의 세대의 교리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이해한 루터와는 거리가 있다. 동 교회의 3단계 인류구원사는 17세기 후반 칼빈주의 정통에 반대하고 ‘역사 발전’의 개념을 성경 해석에 도입한 ‘언약신학’의 창시자들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다.

IV. 결론

종교개혁이 기독교에 준 새로운 것은 가톨릭교회의 교회전통에 대하여 성경 권위를 재확인하고 성경 권위에 대해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으로 세우고,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로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신적 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17세기 서구 합리주의와 정통주의 출현으로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기준이 인간 이성이나 감정으로 혹은 신조와 교리로 대체되면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 개인주의가 발전되어 각 개인에게 성경 해석의 자유를 주면서 교회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 알렉산더 캠벨은,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영향이 약화되고 교회 분열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교회연합에 주목하고 성경을 교회연합의 기초로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교회연합을 위해 환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환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성경이 교회연합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처럼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영감에서 찾았다. 미국그리스도의교회의 환원정신은 1930년대 이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기독교계의 교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를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과 성경저자의 영감에서 찾았다.

미국과 한국 그리스도의교회가 주장하는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인 성경의 내용(3단계 인류구원사)과 성경의 기원(성경저자의 영감)의 진위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추후 별도로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52) 최윤권, 『교회가 하나 되는 길』, 158.

53) 위의 책, 67, 108-110.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주장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연합,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가 한국 교계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서구 이성주의가 세속화를 견인하고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교파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⁵⁴⁾ 이러한 때 한국그리스도의교회가 성경을 교회연합의 기초로 삼고, 성경 권위의 신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교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준다.

첫째, 서구 이성주의에 대항하여 이성 대신 성경을 교회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독교 보수전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둘째, 교회연합의 기초를 인위적인 신조나 교리가 아닌 오로지 성경에만 두는 원칙은 한국기독교의 토착화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셋째, 교회연합의 방법으로 제안한 “본질에 일치”(본질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결속을 끌어냄), “비본질에 자유”(비본질을 통해 개인의 성경해석의 자유를 보장), “매사에 사랑”(실천에서는 사랑으로)은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끌고 있는 에큐메니칼운동의 방법을 보완해줄 수 있다.

54) 19세기 말 한국에 파견된 해외 선교사들은 대부분 교파 소속 선교사들로 한국에 자신들이 속한 교파 교회를 이식하였다. 이후 1910년대와 1920년대 후반 선교사들과 한국 지도자들의 교회연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62, 380-85.